

HERI Insight
연구보고서 6호 2012. 5. 7

‘지속가능’의 오남용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명확화 필요성

하수정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soodal@hani.co.kr)

한겨레경제연구소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차 례

<요약>.....	3
1. 왜 ‘지속가능’의 쓰임새에 관심을 갖나?.....	4
2.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4
(1)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연대표.....	4
(2)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배경.....	7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개발의 정의 수립 주요 이정표.....	7
(3)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	8
<input type="checkbox"/> 자원의 네 가지 형태.....	8
<input type="checkbox"/> 약지속가능성 Vs. 강지속가능성.....	8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 개념도.....	9
3. 콘텐츠 분석.....	12
3.1 의의 및 조사방법.....	12
3.2 조사 결과 및 분석.....	12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사용 추이 (Appendix 1).....	13
<input type="checkbox"/> 연도별 사용 분석.....	13
<input type="checkbox"/> 한계.....	12
<input type="checkbox"/> 분야별 사용 비율.....	15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분석.....	16
4. 결론.....	21
부표.....	23
참고문헌.....	24

〈요약〉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개발’을 언급한 이후 ‘지속가능성’은 세계적인 유행어가 됨.

국내에서는 2000년 김대중 정부는 UN 새천년개발목표에 따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고 국내 개발계획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해옴. 이처럼 국가 기구의 명칭에도 사용될 만큼 공식화됐으나, 그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한 채 남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부족한 실정.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는 2009년 이명박 정권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축소 개편하고 그 자리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한 것. 녹색성장의 핵심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환경피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음.

하지만 이는 경제·사회·환경이 고루 발전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성장의 보류도 염두에 두는 지속가능발전에서 한발 후퇴한 것. 지속가능성이 녹색성장의 수단으로 인식될 정도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에 따라 연구자는 정명(正名)의 정신¹에 입각해 ‘지속가능’의 본래 의미를 고찰 함.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기까지, 역사적 배경과 이론적 토대를 살핌. 또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노력과 사건의 연대기 정리를 통한 개념의 변천사를 살펴 봄.

이어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콘텐츠 분석을 해봄. 언론에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언제쯤 등장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그 빈도와 추이는 어떠한지 양적 분석과 총 248개의 기사를 개별 분석하여 문맥상 쓰인 지속가능의 의미에 대한 질적 분석을 담음.

¹ 공자는 자로라는 제자가 정치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반드시 명을 바로 잡겠다 (必也正名乎)” 라고 했고,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 (政者正也)”라고도 해 정치에 있어서 정명의 중요함을 피력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3049>).

1. 왜 '지속가능'의 쓰임새에 관심을 갖나?

- ▷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어 국내에서도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는 실정.
- ▷ 경제와 정치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이 지속가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오히려 본 뜻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 반대로, '지속가능'의 개념이 바로잡혀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음.
- ▷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어떤 영역에서 선점되었고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지 언론에 비친 '지속가능'의 용례를 짚어 대한민국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현재를 진단.

2.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인가?

(1)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연대표

연도	세 계	국 내
1962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대중화.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찰의 시발점이 됨.	-
1963	가렛 하딘 박사 사이언스지에 공유지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commons) 개념 발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 제정. 공장 또는 기계·기구의 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대기·하천오염,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
1970	미국 전역에서 2000만 명이 모여 환경관련 토론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시위.	-
1971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설립으로 시민운동이 조직화 국제화 됨.	공해방지법을 대폭 수정·강화하여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설치허가제도, 이전명령제도 등을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주장.	-
1972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일명 스톡홀름 회의라 불리는 국제연합의 첫 번째 지구적 환경 회의. 주제인 '오직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성을 위한 합의. 지속가능개발의 개념 등장.	-
	로마 클럽 <성장의 한계>보고서 발표.	-
1973	원유 위기로 '성장의 한계' 논의 가속화	-

1974	<성장의 한계>에 대응, 성장의 권리와 형평성을 내세운 남쪽 국가의 입장, 라틴 아메리카의 세계 모델 개발.	-
1977	-	환경보전법 제정·공포.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 기준,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등 예방과 개선책을 도입.
1980	지미 카터 대통령의 요청으로 제작한 《글로벌 2000》보고서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부각.	개정된 헌법에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
1982	국제연합 자연을 위한 세계 헌장 채택	한국 최초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당시 한국공해문제연구) 발족
1983	방글라데시 그라민 بنك 설립. 극빈층에 마이크로 크레딧제공. 기존의 자본과 시장의 법칙에 새로운 질문을 던짐.	환경오염방지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1984	인도 보팔 참사. 건전지 회사인 유니온카바이트의 맹독화학물질 유출로 10,000여명 사망.	-
1985	세계기상학화, 국제연합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국제과학연맹이사회가 함께 모여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논의.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
1986	체르노빌 원자력발전 사고로 대규모 방사능 누출.	-
1987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보고서 발간.	-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 규제를 위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
198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설립.	-
1990	-	환경정책 기본법 제정. 환경보전법을 환경정책기본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분쟁조정법 등 6개 법으로 분법.
1991	-	1991년 낙동강 폐놀 방류 사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
1992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개최. 정식 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UNCED). 185개국 대표단이 모여 ‘리우선언’과 구체적 행동지침을 담은 ‘어젠다 21’을 채택.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폐기물의 수출입 및 국내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1993	국제연합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 설립. ‘어젠다21’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
1995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덴마크 코펜하겐서 개최. 빈곤퇴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룸.	-
199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환경경영제체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14001 채택.	-
1999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지수를 평가해 투자자들에게 제공.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제정

2000	유엔새천년개발목표 채택. 189개의 유엔 회원국 정상이 합의한 8가지 개발 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2001	911 공격. 잇단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의해 반서구, 반미 정서 강화. 고베 풀린 팽창경제에 브레이크.	-
2002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 개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와 비정부기구(NGO)의 대표단 6만5천여명 참가.	2002년 6월부터 동강 일대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 강원도 일대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1997년 9월 건설예정지 공식 발표. 거센 반대운동으로 1999년 백지화.
	2002년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UNDESD)으로 정함.	교토의정서 비준.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GRI ·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가이드라인' 발표.	낙동강특별법, 영산강특별법, 금강특별법 제정
2003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정 및 발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 제정
2004	-	야생동·식물보호법(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폐지), 약취방지법,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2005	교토 의정서 공식 발효.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법적 구속력 있음. (미국은 2001년 탈퇴)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
2006	영국 정부 스톤 보고서 발행.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지구 온난화가 세계 경제에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 담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미항공우주국(NASA) 오존층이 회복되었다고 발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공동 노력에 힘입은 것.	에너지의 안정공급 및 친환경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기본법안' 공포.
2007	미국의 부통령 엘 고어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 통해 기후 변화의 경각심 대중화.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확정 및 UNCSD 제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수질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09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정부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
	코펜하겐기후변화회 개최. 193개국이 참석. 코펜하겐 협정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구속력 없는 논의에 그침.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20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1	일본 북동부 지진과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붕괴로 대량의 방사능 누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연이은 원전 폐쇄 움직임.	4대강 정비 사업 반대 운동 확산. 환경단체, 시민단체, 불교와 천주교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과 함께 서명운동, 양심선언, 집회, 소신공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나 사업은 계속 추진.

(2)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배경

□ 지속가능개발의 정의 수립 주요 이정표

- 1972년 유럽의 경제인과 과학자가 중심이 된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에서 자연자원 부족의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이 불러 오는 환경 오염문제와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 의식, 성장에 대한 근본적 고찰 필요성 제기.
- 1972년,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일명 스톡홀름 회의에서 환경문제가 범지구적 문제임을 확인. 개발이 동반하는 사회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제 / 환경 / 사회를 아우르는 지속가능 개발의 개념 등장**.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수립
-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는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 개발은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개발” (WCED, 1987)²을 일컫는다고 정의. ‘지속가능’이라는 말의 대중화에 기여.
- 1992년 브라질의 리우 회의를 통해 지구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방안을 구체화. 이를 위한 각국 정부의 실천방안을 담은 ‘**의제 21(Agenda 21)**’ 작성 합의.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구체화 되고 각국의 실행부서에 전달되어 현장에서 고민하게끔 한데 의의.
- 2001년 세계경제포럼으로 불리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대항하여 지구 반대쪽 브라질에서 **세계사회포럼(WSF)** 개최. 이후 매년 지속되고 있음. 다보스 포럼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선진국 중심의 회의인 반면, 세계사회포럼은 **반세계화, 대안경제** 등을 기치로 개발도상국의 입장 반영을 주장.
-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남쪽 국가들에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 **사회통합, 환경보호, 경제성장**의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으로 확인.
- 일련의 논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 경제 부분에 대한 통합적 고찰과, 결정 과정에 기업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 부각.

²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발표. 노르웨이 환경부장관 출신 구로 할렘 브룬트란트가 중심이 되어 발간한 보고서의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정의를 계기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됨.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발전의 주체 또는 직접 수혜자가 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와 권한부여가 중요함.

(3) 지속가능성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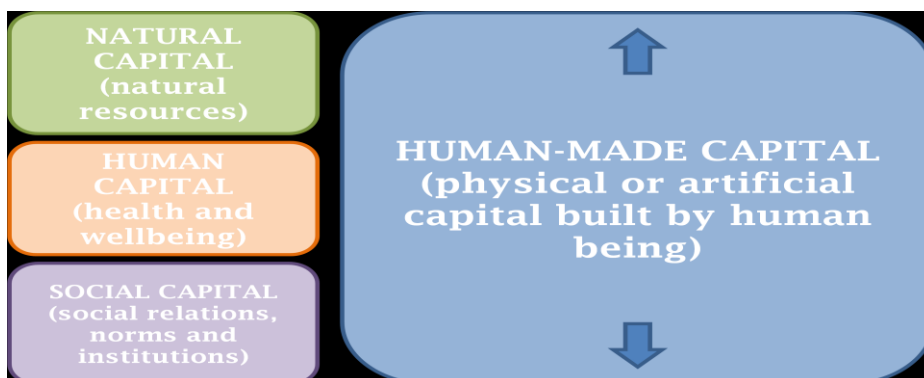
□ 자원의 네 가지 형태



(Shields 2000)

□ 약지속가능성 Vs. 강지속가능성

- 약지속가능성 : 자본의 총합이 커질 수 있으면 구성은 문제가 되지 않음. 다른 자본의 양이 줄거나 아예 효율성이 높은 다른 자원으로 대체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자연자본의 감소분을 물질자본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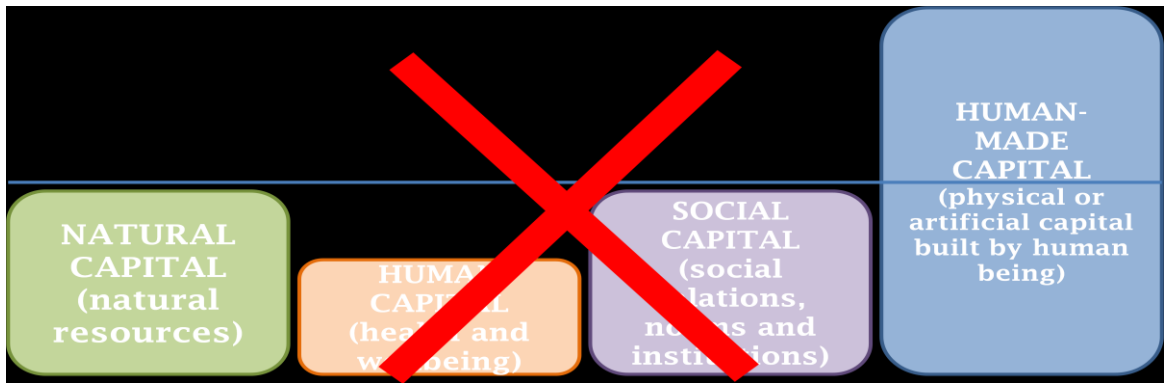


- 약지속가능성의 관점으로는 자본의 총합이 커지면 다른 자본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효율성이 높은 자본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 경제학의 정태적 효율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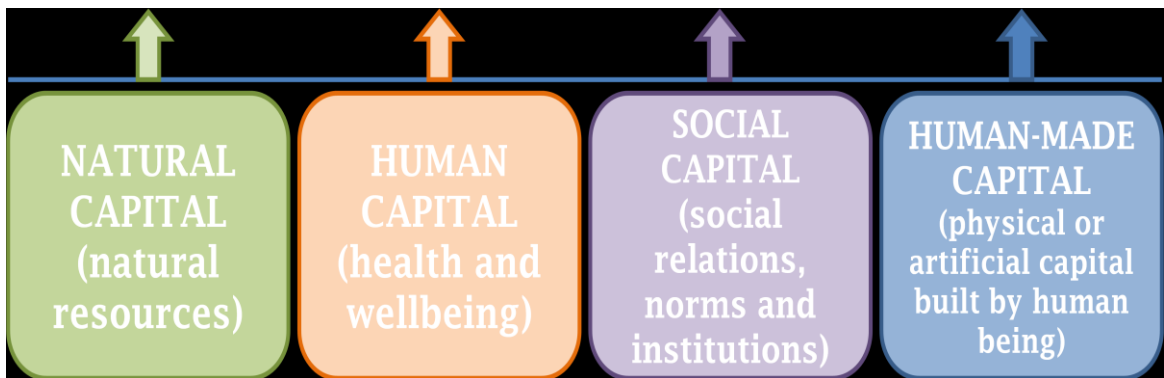
● 강지속가능성 :

모든 자본은 함께 개발되어야 하며 한 자본의 희생으로 효율성이 높은 다른 자본을 개발해 총량이 크게 늘었다고 해도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즉 인공자본을 위해 인적자본이나 자연자본을 희생할 수 없음.

- 특히 자연자본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되지 않거나 물리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총량이 보존되어야 함. 이 경우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개발 행위는 강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속가능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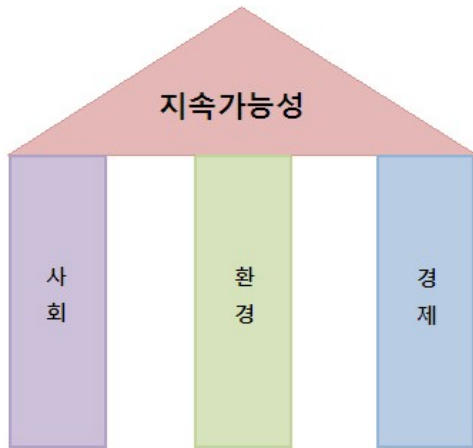
강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는 한 자본이 크게 증가할 수 있더라도 다른 자본의 자체 총량의 감소를 담보로 한 것 이라면 개발 불가능.



강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발전이란 모든 자본이 자체 총량을 유지하며, 한 자본의 훼손 없이 고루 발전하는 것.

□ 지속가능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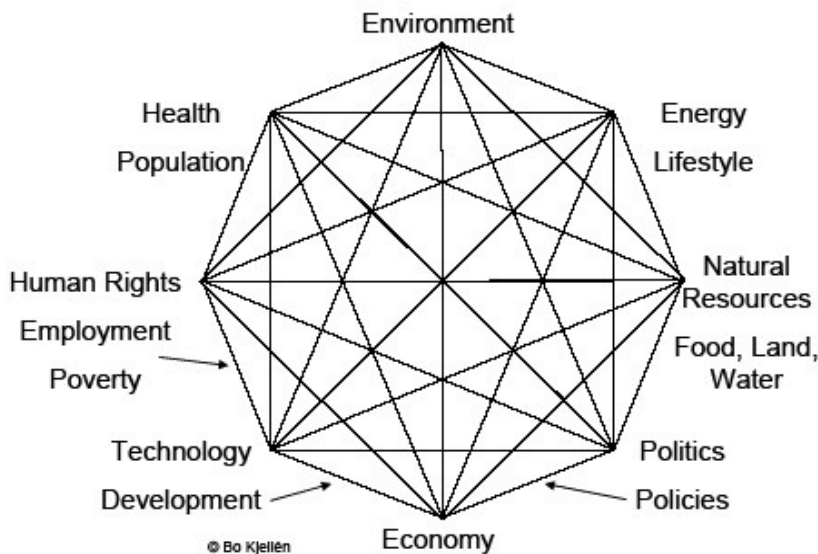
- 지속가능의 세 기둥 개념(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지속가능성’ 개념이 수립된 초기에는, 사회/환경/경제 세 분야가 함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고 있다는 세 기둥 개념으로 지속가능성을 설명. 세 기둥 각각이 독립적으로 또 집합적으로 중요함.

● 셸렌의 지속가능 다이아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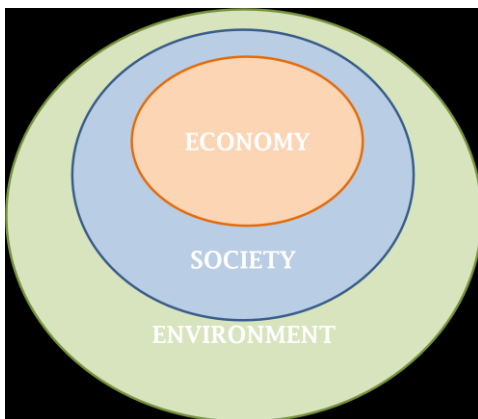
셸렌의 지속가능 다이아몬드는 경제,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사회과학적 쟁점들 시각적으로 구현. 오늘 우리의 과제는 지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에 있어 사회 과학을 통합시키는 것. (Kjellén 1999)



(Kjellén 1999)

- 이전까지 지속가능성은 주로 환경과 경제 중심의 담론이 지배적이었음. 셸렌의 지속가능 다이아몬드는 이제 사회/환경/경제의 세 기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책 결정자들은 환경과 경제를 축으로 둘러싼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 사회 문제가 말로 지속가능성이 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았는지 표현하는 지표임. 그 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정치, 정책, 삶의 방식, 인권, 빈곤, 고용, 기술개발,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과학의 쟁점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며 우선해야 함.

-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사회란,
 - ▷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되
 - ▷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며
 - ▷ 각각의 인간이 균형잡힌 사회 안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자유롭게 발전의 기회를 갖는 사회.
- 같은 맥락에서 IUCN, UNEP, WWF는 “지속가능 발전이란 인류의 삶의 질을 증진하되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함.
- 특이한 점은 여기에서 경제적인 요소가 약해졌다는 점. 여기에는 다분히 적극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발전은 지속가능성의 요건도 목적도 아니며, 한 나라의 경제는 지속가능성이 정해준 한계 안에서만 발전해야” 하기 때문.
- 지속가능성의 생태경제학 개념도



(TIETENBERG 2008)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는 경제
 • 사회• 환경이 세 기둥 개념에서와 같이 동등한 것이 아닌 부분집합으로 표현. 경제<사회<환경의 순서로 포함 관계가 설정되어 경제는 사회의 충분조건이고 사회는 환경의 충분조건, 즉 환경은 사회와 경제의 필요조건.

바꾸어 말하면 경제는 사회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사회는 환경 없이 존재할 수 없음.

- 에치오 만치니의 SLOC: Small, Local, Open, Connected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지속가능한 대안을 살펴보면 작은 규모에(Small),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Local), 개방적이고(Open), 연결되어 있다(Connected)는 특징을 갖음.”³

³ Manzini 2009, “Design for Sustainability: Visions and proposals for possible worlds”, Danish Designers, <http://www.danishdesigners.com/index.php?page=313> 2011/12/2 확인.

3. 콘텐츠 분석

3.1 의의 및 조사방법

□ A, B 두 매체⁴를 선정하여 검색이 제공되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행함.

- 양적 분석

두 매체에서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①몇 년도부터 등장하는지 ②연도별로 그 사용된 횟수와 ③어느 분야에서 몇 회씩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량 분석. 연도별 횟수의 증감 추이와, 주로 어떤 분야 기사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사회에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으며, 주로 어떤 영역에서 이 단어를 선점하고 있는지 분석.

- 질적 분석

연도별로 100개의 기사를 읽고 함의가 있다고 판단한 기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해석. 기사 속의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앞에서 정의한 지속가능의 본래 뜻과 얼마만큼 부합하는지 살펴봄. 지속가능보고서나 국제 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기사 보다는 자체 생산한 기사 중심으로 분석함.

3.2 조사 결과 및 분석

□ 연도별 사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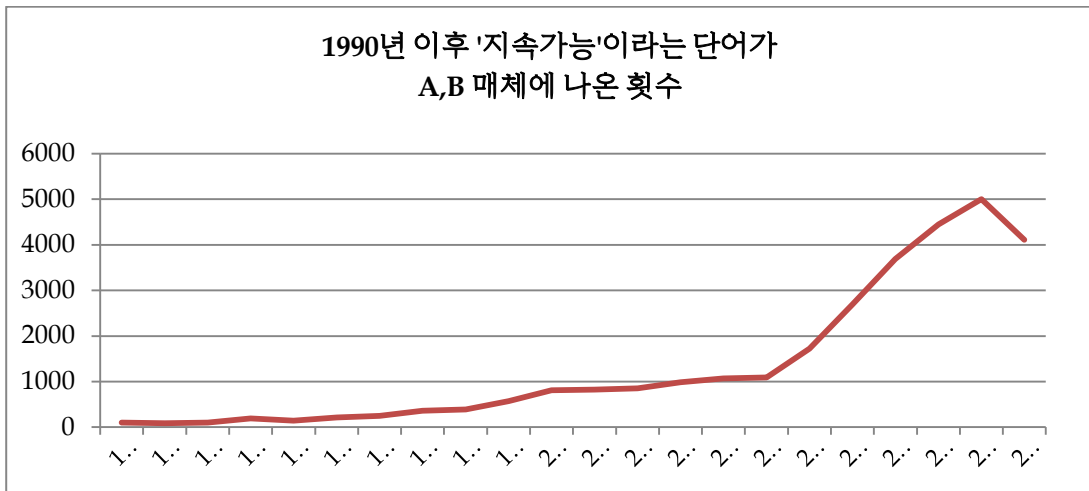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기사의 수가 100건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건건이 확인한 결과 ‘지속가능’이라는 의미의 지속가능이 쓰인 것은 지구 정상회의의 전문이 실린 1992년 4월 21일 기사가 최초임.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사용 빈도가 크게 늘었음.

하수정 2011, “지속가능 가치 담은 새로운 분배시스템 상상해야”, 한겨레, 12/20,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511005.html?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2011/12/2 확인.

⁴ 두 매체 다 종합 뉴스를 다루는 매체로 하나는 인쇄매체이고 다른 하나는 뉴스 통신사임. 동일한 조건에서 분석하기 위해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두 매체를 골랐음. 이번 조사는 기사의 방향이나 논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닌 사용된 횟수와, 빈도수 변화의 추이, 영역별 사용횟수, 용어에 대한 이해를 분석하는 것으로 매체의 이름은 표기 하지 않음.

□ 연도별 사용 추이 (부표 1)



□ 한계

검색 엔진의 기술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이 꼭 우리가 현재 말하는 지속가능 (Sustainable)에 해당하는 것만 검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 함께 쓰인 기사도 같이 검색됨.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 <전문>**개발따른 환경피해부분 개도국입장 수용**

원칙1=인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심의 중심이 된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

원칙2=각 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자국의 환경 및 개발정책에 의하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또한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범위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국가나 관할범위 외부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원칙3=개발의 권리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개발 및 환경적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원칙4=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이로부터 분리되어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원칙5=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필수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992.04.21 / 종합 / 12 면

- 지구정상회의에 관한 기사를 시작으로 찰스 황태자, 앤서니 기든스 등의 해외 기고가의 글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함.

찰스 영 왕세자 쓰레기 줄이기 특별기고

리우회의에서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된 문구는 아마도 지속가능한 성장 일 것이다. 이 말은 거의 대부분의 삼라만상을 의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연자원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1992.10.13 / 종합/6 면

- 이후 대통령의 UN 발표문, 세계화에 대한 기사와 함께 왕왕 보임. 1996년 3월 1일 A매체 정치면 시론에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회자된다고 나옴.

패적환경보장 핵심 정부 청사진 필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회자되는 말은 「지속 가능한 개발」 혹은 「인간 중심적 발전」을 들 수 있다. 지난 1991년 리우 환경회의'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담 등은 유엔이 주관하는 지구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21세기 새로운 비전과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1996.03.01 / 정치 / 5 면

-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팔당댐 주변 건축 규제, 영월댐 반대 환경 운동 등의 기사에 ‘지속가능’ 개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며 외신기사가 아닌 자체 기사에서 쓰이기 시작.

강원도에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

오는 2001년까지 강원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자연환경연구공원이 조성된다. 환경부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계적인 환경기술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에 환경연구센터와 자연학습시설, 생태공원 등을 갖춘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조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1997.08.21 / 사회

- 2000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정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이후 위원회, 관련 단체, 학회 언급 뉴스에 등장.

[대통령직속]「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신설

이르면 내년 초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개발 국가위원회’가 발족돼 국내 개발계획 및 환경분야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자문을 하게 된다. 영월 동강댐 건설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 현안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되는 것이다. 1999.08.19 / 정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2003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에도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용 범위가 넓어짐.

오늘 '행정수도 지속가능한가' 심포지엄

이날 심포지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수도 이전 문제를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평가·점검하게 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안제 위원장과 이춘희 부단장의 현황 발표에 이어 환경재단 136포럼 회원과 각계 인사 등 패널의 토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4.06.28 / 정치

- 이후 '지속가능지수', '지속가능경영' 등이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지속가능'이라는 단어의 등장횟수는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

□ 분야별 사용 비율

구 분	경제	사회	사실/칼럼	정치	문화	국제	스포츠/연예	기타
매체 A	34.0%	24.4%	9.4%	8.6%	7.4%	7.4%	1.6%	7.0%
매체 B	45.5%	13.5%	-	18.6%	2.0%	15.5%	2.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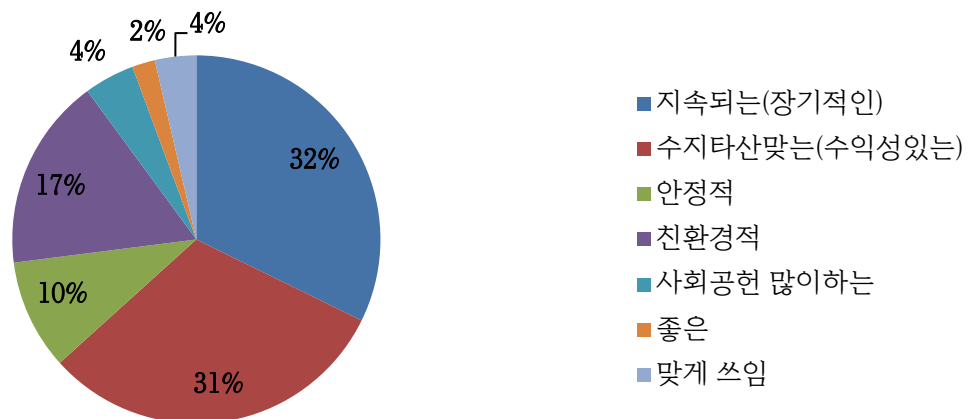
- A의 경우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경제분야에 사용된 횟수가 전체기사의 34%에 해당.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이나, 지속가능 관련 평가 지표,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며 경제분야에 쓰인 횟수가 높아짐.
- 사회분야 기사에 사용된 횟수는 전체의 24%를 차지. 이는 신문의 사회면 기사에 해당하는 뉴스성 기사로 보는 것이 적절. 주요 기사를 보면 각종 행사 내용이나 목적 소개, 관련 인물의 인터뷰에 사용된 것이 대부분.
- B 역시 경제 분야가 전체의 46%에 달함. 주로 기업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한 각종 순위에 대한 기업의 비전과 성과에 대한 기사. 뒤를 이어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분야 역시 정치인들의 발언이 중심.
- 국제 분야 역시 A와 같이 국제기구의 발표자료, 국제 회담, 각국 정상들의 특정 사안에 대한 언급에 사용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 사회 분야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캠페인이나 행사 기사임.
- 기사를 훑어보면 대부분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관련내용이나, 지속가능

경영지수, 기업인 인터뷰에서 기업의 목표 설명, 회답이나 국제기구의 성명을 전하는 기사가 주류를 형성.

□ 콘텐츠 분석

경제, 사회, 정치, 국제, 문화, 건강, 스포츠 등 분야별로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비율에 맞춰 임의로 기사를 추출. 총 248건의 기사를 분석해 해당 기사에서 쓰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도표로 정리.

〈기사 속 '지속가능'의 의미 정리〉 부표 2.



- 기사 속에서 '지속가능'은 각각 '장기적인', '수익성 있는', '안정적', '친환경적', '사회공헌 많이 하는', '좋은' 등의 의미를 순서대로 대체해서 쓰였음. 본래 의미에 가깝게 쓰인 것은 전체의 4%. 특히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의 의미와 '(재정적으로)수지타산이 맞는'으로 쓰인 경우가 각각 32%, 31%로 둘을 합치면 전체의 약 2/3 수준.
- 시간적 또는 횡수가 '지속되는' 혹은 '장기적인'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가장 많음(32%). 이는 영어의 sustainable이 소개될 때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공유 없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지속'과 '가능'이라는 의미가 남아 말 그대로 '지속이 가능한'으로 이해하고 있는 탓으로 보임.
- 다음으로 많이 쓰인 '수지타산이 맞는'은 특히 사회, 정치 쪽에서 많이 보임. 어떤 사업이나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때 재정적으로 수익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 지속가능성의 세가지 기둥인 환경, 경제, 사회의 영역 중 경제적인 부분에 치우쳐 지속가능성을 이해.
- 사회 분야 기사에서는 '지속가능'이 친환경적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임. 사

회기사에 환경파괴나 개발관련 내용이 많았기 때문.

- 올바르게 쓰인 예는 총 248건의 기사 중 9건. 기사의 문맥을 분석해 한 영역만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발전을 지향하며, 또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가치관의 변화 등 지속가능성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우에 한해 맞게 쓰인 것으로 보았음.

예) **[복지지출 증가 문제 해법은?] 세금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의 토대는 성장

마이클 킨 자문역은 "복지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복지지출을 줄이지 않았다. 복지지출은 세(稅)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사바니 차 크라보시 이코노미스트는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은 나라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짜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2011.11.20/ 경제

- 유독 복지 관련 기사에 지속가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 여기서 '지속 가능'이 뜻하는 것은 '복지 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즉 '세금을 통해 복지 재정 자본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상태를 뜻함. 국가 재정의 입출 균형이 맞아 국가가 파산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뜻으로 쓰임. 이 기사에서는 '수지타산이 맞는' 이 더 적당한 표현.

정정택 체육공단 이사장의 소통과 리더십

사실 체육공단은 가만히 있어도 기금 조성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자칫 안일하게 현실에 안주하다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정 이사장은 "전성기를 누렸던 일본 파친코가 지금은 업장의 4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을 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야를 넓혀 지속가능한 사업을 만들어야 발전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2011.12.11/ 스포츠

- 같은 오류는 다른 종류의 기사에서도 종종 발견. 위의 경우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든다는 뜻은 공단이 파산하지 않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가 '수익성 있는'을 대체한 것으로 위의 '수지타산이 맞는', '재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과 비슷한 맥락임.

[포스트 김정일 시대] 中 최고지도부 총출동해 조문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20일 '중국은 북한 체제 안정의 든든한 방패'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국내 정치 방향에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길로 가게 해야 한다.

내정간섭은 피곤하고 현실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영향력 발휘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엄중하게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썼다. 2011.12.22 / 국제

-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길로 가게 한다는 부분에서 쓰인 지속가능은 환경·사회·경제가 고루 발전하는 상태라기 보다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됨.

5월 마운드, 토종에이스가 돌아왔다

김광현 역시 지난 27일 KIA와의 광주경기에서 6이닝 동안 단 1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올렸다. 단순한 1승보다 시즌 초 불안했던 밸런스가 정상궤도로 돌아온 점이 반갑다. 칭찬에 인색한 SK 김성근 감독조차 "첫 승을 했으니 이제 괜찮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심적 부담도 덜었고 지속 가능한 모습이었다는 뜻이다. 2011.05.02 / 스포츠

- 위의 기사에서 '지속 가능한 모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뜻. 보고서에서 논하는 '지속가능'과는 전혀 다른 말. 지속하다'로 번역하는 sustain의 뉘앙스는 사실 '지탱하다'에 가까움. 지구 또는 우리 사회가 지탱할 수 있는 정도를 'sustainable'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고객의 목소리에서 '지속성장의 길' 찾아라

기업의 수익은 궁극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고객의 기대와 니즈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2010.03.23 / 경제

-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을 파악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여기서 지속가능 기업은 '장수하며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뜻. 본래 의미의 지속가능과는 매우 다른 의미.

[더 나은 미래] "이윤만 좇는 것, 이윤창출에 오히려 독이죠"

이처럼 기업의 구성원들과 투자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경영활동을 결정하는 기존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내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영활동'이 지속가능경영이다. 지속가능경영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고객관계관리 역시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근 기업들이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역시 그 핵

심은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성과를 선전하는 내용만 담을 것이 아니라 기업에 던져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문제제기들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즉 과거의 기업들이 주주와 경영진만을 염두에 둔 재무보고에만 집중했다면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주주, 고객, 구성원, 지역사회, 투자자, 비즈니스 파트너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이 보고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관심이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기업시민위원회가 이름만 걸어놓은 죽은 조직이 아니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객보호, 환경, 상생, 윤리, 사회공헌 등 ...핵심 지속가능경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2011.10.25 / 경제

- 기업 홍보성 기사다. 내용을 바탕으로 보자면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지속가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음. 먼저 지속가능을 논할 때 핵심이 될 수 있는 총체적 접근(transdisciplinary)에 입각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음. 또 의사결정에 있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 공개를 보장하며, 환경·사회·경제 영역을 두루 점검하는 경영을 한다는 부분 역시 지속가능의 개념과 실행방법에 부합함.

서울대 '지속가능 캠퍼스' 조성 본격화

서울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SSNU)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는 등 지속가능 캠퍼스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TF팀은 올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SSNU 백서 발간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민·학·관·군 관악산 보호위원회 구성 ▲방문객 대상 SSNU 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 등 모두 10개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2008년 SSNU 선언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친환경 캠퍼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도에 오르게 된다"면서 "전국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8년부터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국제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인증, 수소연료전지, 충전식 전기자전거, 탄소마일리지제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2010.03.02 /사회

- TF과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환경 관련 내용.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환경경영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친환경=지속가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물론 환경보호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나 조직 안에서 친환경 정책을 펴는 것만으로 '지속가능한 캠퍼스'라 할 수

는 없음. 비슷한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⁵의 자료와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사회/경제 분야를 고루 반영한 세부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CEO 인터뷰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러한 청사진은篤心 있게 '지속가능경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의 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 서 대표는 1997년 대표 자리에 오른 이후 친환경 경영에 주력해 왔다.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운영하는 200만m² 규모의 제주도 농장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2만8500t으로 이 회사의 생산·물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뛰어넘는다. 또 '저탄소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이력 정보를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도입함. 2009.09.04 / 경제

- 친환경을 지속가능과 동의어로 보는 예는 많음. 위 기사를 보면 해당사에서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한다며 지속가능경영이라 표현하고 있음.

[더 나은 미래] 도시의 지속가능성? 이상적인 큰 그림 가지고 접근해야

-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일까?

"요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 정화 같은 것들을 얘기하곤 한다. 하지만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다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소박한 바람 정도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대기를 정화하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오히려 이상적인 도시가 무엇인가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것에 접근해가는 것이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아닐까." 2011.01.25/ 사회

- 위의 인터뷰 기사는 지속가능이라는 것이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정화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함. 하지만 여기서 쓰인 '지속가능'은 명확한 실체가 없는 '이상적'이라는 표현의 대체재임.

적정기술 아이디어로 저개발국·소외계층 돕는다

"제대로 된 적정기술이라면 이 기술이 사용되는 지역이나 사람들의 정치, 경제, 윤리, 문화,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해야 하고,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지요." 굿네이버스 적정기술센터 팀장은 최근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⁵ Göteborgs universitet 2011, Miljö & hållbar utveckling, Gemensamma förvaltningen

<http://www.mls.adm.gu.se/?languageId=100000&contentId=->

1&disableRedirect=true&returnUrl=http%3A%2F%2Fwww.mls.adm.gu.se%2Fsustainability%2F, 11/12/20 확인.

상을 반기면서도 그 접근에 진정성을 더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현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해야 합니다."
2011.12.12 / 사회

- 적정기술을 이용한 저개발국 원조에 관한 위의 기사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음. 삶의 개선의 방향이 단순한 선진국 식 발전이 아닌 정치, 경제, 윤리, 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현지인의 참여와 관점을 반영한다는 점은 지속가능의 개념과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바른 접근이기 때문.

4. 결론

- 지금까지 학계, 정치계에서 발전한 ‘지속가능’의 의미를 정리하면, 경제<사회>환경이 그 포함관계를 고려하여 고루 발전하되, 실행과 결정 과정에 있어 분야를 망라하여 연구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 논의의 쟁점이 점차 사회적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음.
- 쓰임새가 늘고는 있으나 언론에 등장한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쓰인 기사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 본래 의미를 반영하기 보다 ‘오래가는’, ‘재정자립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친환경적’, ‘좋은’, ‘이상적인’ 등 본 의미와는 동떨어진 채 왜곡되어 사용되고 있음.
- 주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공약이나 비전을 말할 때, 또는 홍보 목적으로 하는 인터뷰 등의 기사에 사용. 본래의 의미와는 동떨어져 목적을 윤색(greening) 하는데 쓰이는 등 ‘지속가능’이 지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기도 함.
- ‘지속가능’의 오용은 단어 자체의 포괄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함 (Berman 2011). 어떤 시점이나 배경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사례를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그 세부 내용이 측량가능 해야 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Hales & Prescott-Allen 2002)
-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낯선 단어. 2002년 유엔총회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으로 정정한 것 계기로 많은 유럽의 대학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을 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국가별 지침을 내리고 실행하고 있음.

- **복미와 서유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학제의 하나로 발전시키고 학계+경제계+지역사회가 함께 관련 연구를 실행하여 대중에게 친숙한 단어인 반면,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지속가능’이 생활어로 자리잡지 않았으며, 관련 교육이 부족함.**
- 언론은 지속가능의 참 뜻을 밝히고 바른 사용을 해야 함. 특히 대중이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언론임을 감안할 때 편향 또는 왜곡된 사용은 대중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필요에 의해 ‘지속가능’ 담론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오용할 여지를 주는 격으로, 참 의미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데 장애가 됨.
- 정부 역시 지속가능을 말할 때 환경>사회>경제의 순서로 가중치를 둔 지속가능의 의미와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는 것을 염두하고 정책을 펴야함.

부표

부표 1. '지속가능'이라는 말이 쓰인 횟수(1990~2011)

연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횟수	4107	5004	4447	3689	2691	1722	1089	1067	987	853	826
연도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1993	1992	1991	1990
횟수	810	570	387	360	246	216	140	196	99	86	102

부표 2. '지속가능'이 각 지면의 영역에서 대체한 의미 통계

대체 의미 \ 분야	경제	사회	정치	국제	문화	건강	스포츠	소계
지속적인(장기적인)	41	7	12	8	7	3	2	80
수지타산맞는(수익성있는)	31	14	15	10	2	3	2	77
안정적	15	2	2	4	1			24
친환경적	10	14	5	4	7	1	1	42
사회공헌 많이 하는	4	3			4			11
좋은	3	1			1			5
맞게 쓰임	2	7						9
소계	106	48	34	26	22	7	5	248

참고문헌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이상헌 2011, 생태주의, 책세상, 서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pp.102~104.

Berman Craighton 2011, Sketchnotes of Ezio Manzini at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ore77,

http://www.core77.com/blog/sketchnotes/sketchnotes_of_ezio_manzini_at_school_of_the_art_institute_of_chicago_21109.asp, 11/7, 2011/12/2 확인.

Hales & Prescott-Allen 200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1, Sustainable Development Timeline,

<http://www.iisd.org/rio+5/timeline/sdtimeline.htm>, 2011/12/2 확인.

Kerk, Geurt van de & Manuel, Arthur R. 2009, Sustainable Society Index, Aug/10, 2011/12/2 확인.

Kjellén, Bo 1999, Multilateral Diplomacy and Science, The Columbia University

Earth Institute: Earth Matters, Winter 1999/2000, 2011/12/2 확인,

<http://www.clgd.org/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8>

Ott, K. & P. Thapa (eds.) 2003, The case of strong sustainability, *Greifswald's Environmental Ethics*. Greifswald: Steinbecker Verlag Ulrich Rose.

Shields 2000, Min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ited by Herbert, Roger, 2009, 'Environmental impacts from resource exploitation' lecture note, Department of Earth Science, Uppsala University.

Spaargaren, G., Mol, A.P.J., and Buttel, F.H., (eds.) 2000, *Environment and Global Modernity*, London, Sage Publications.

TIETENBERG 2008, 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PEARSON, ADDISON WESLEY, HARLOW.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5, World summit Outcome, Resolution A/60 session/1, II. Develop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managing and protecting our common environment, article 48.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50.

HERI Insight

발행인: 이원재

편집인: 이봉현

발행처: 한겨레경제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3층 (121-750)

전화번호: 02-710-0070

팩스번호: 02-710-0080

홈페이지: <http://www.heri.kr>

발행일: 2012년 5월 7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경제연구소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